



하나된 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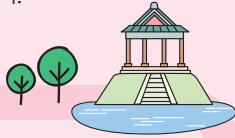
문화유산으로 즐기는
강원도 여행길





삼척 죽서루 | 보물 제213호

삼척시의 서쪽을 흐르는 오십천이 내려다보이는 절벽 위에 있는 누각(樓閣)인데, 누의 동쪽으로 죽장사라는 절과 이름난 기생 죽죽선녀의 집이 있어 '죽서루(竹西樓)'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강릉 경포대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호

경포호 북쪽 언덕에 있는 누각으로, 주위에는 소나무와 상수리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그 너머로 경포호와 바다가 내다보이는 운치있는 풍경을 이루고 있다.



양양 낙산사 일원 | 사적 제495호

671년(신라 문무왕 11) 의상대사가 창건했으며, 바닷가 절벽 위에 지은 의상대와 거대한 해수관음상 등이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찰 중 하나다.



청간정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2호

청간천 하구 언덕에 위치한 조선시대의 정자로, 주변 항구와 동해 한가운데 떠있는 죽도의 전망이 빼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관동팔경은 많은 시인과 화가들의 손끝에서 예술로 승화되었다. 보통 사람들이 태어난 곳에서 멀리 여행하는 것이 어렵던 시절, 그림과 시 속의 풍경은 그곳으로 여행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었다. 정조 역시 관동팔경을 무척이나 가보고 싶어 했으나 김홍도를 보내 그림을 그려 오라 시키는 것으로 대신해야 했다. 그림 속 그곳에 언제든지 몇 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지금, 그곳을 찾아 길을 떠난다.



삼척 죽서루 → 강릉 경포대 → 양양 낙산사 일원 → 청간정

단종 유배길



단종대왕 유배길

서울을 떠나 단종이 유배를 온 길 중 영월군에 해당하는 솔치재~청령포 구간을 3일간의 코스로 조성해 놓았다. '통곡의 길', '충절의 길', '인륜의 길' 총 43킬로미터에 달하는 구간을 도보로 답사할 수 있다.



영월 청령포 | 명승 제50호

단종의 유배지로 서쪽은 육육봉의 험준한 암벽이 솟아있고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섬과 같이 형성된 곳이다. 단종이 한양을 바라보며 시름에 잠겼다고 전하는 노산대, 망향탑 돌무더기 등 슬픈 역사가 남아있다.



자규루 및 관풍헌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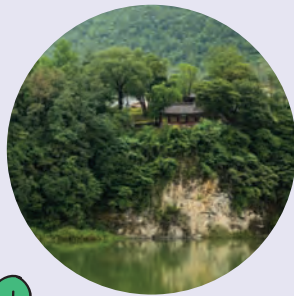
단종은 유배지였던 청령포가 홍수로 침수되자 영월 중심에 위치한 관풍헌으로 옮겨 기거하다가 세조가 내린 사약을 받고 승하였다. 단종이 '자규시'를 지어 읊었다 하여 이름 붙여진 자규루가 있다.



낙화암과 민충사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27호

단종이 승하하자 하인과 시녀들이 이곳 절벽에서 몸을 던졌다 하여 낙화암이라 이름이 붙여졌다. 1742년(조선 영조 18)에 절벽 위에 민충사라는 사당을 건립하여 위패를 모시고 제를 지내게 되었다.



영월 장릉 | 사적 제196호

단종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중종 때 암장지를 찾아 봉분을 갖춘 이후 1698년(조선 숙종 24)에 복위돼 장릉으로 추봉됐다. 능 입구에는 단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단종역사관이 있다.



단종 유배길

단종(1441~1457)은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에서 가장 슬픈 사연을 가진 왕으로 기억된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으며 열두 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마저 잃고 왕의 자리에 올랐으나, 숙부에게 쫓겨나 결국은 먼 영월 땅에서 유배생활을 하다 죽음을 맞이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짧은 삶을 안타까워해서인지, 영월에는 단종과 관련한 많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단종대왕 유배길 → 영월 청령포 → 자규루 및 관풍헌 → 낙화암과 민충사 → 영월 장릉

고려의 시작과 끝

철원 평화전망대 | 공예도성터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공예도성터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전망대 안에는 모형도가 있어 그 규모와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고성 왕곡마을 | 국가민속문화재 제235호

동해안의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 자리한 전통 한옥마을로, 14세기경부터 강릉 함씨와 강릉 최씨, 용궁 김씨 등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 고려 말의 충신이었던 함부열이 조선의 건국에 반대하여 숨어든 것에서 시작됐으며,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된 후 150여 년에 걸쳐 형성된 마을이다.



양양 하조대 | 명승 제68호

양양 하조대는 온갖 기암괴석과 바위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암석 해안으로, 주위의 웅장한 송림과 어우러져 동해안의 절경을 이룬다. 조선의 개국공신인 하륜(河崙)과 조준(趙浚)이 은둔하며 혁명을 도모한 곳이라 하여 하조대(河趙臺)라 이름 붙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삼척 준경묘 · 영경묘 | 사적 제524호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고조부인 목조의 부모 묘이다. 백두대간 허리에 해당하는 두타산 자락의 명당자리에 있어 땅의 기운이 돋보이는 곳이다.



삼척 공양왕릉 | 강원도 기념물 제71호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삼척으로 유배 왔다가 피살된 후 묻힌 곳이다. 네 개의 무덤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양왕과 두 아들이 함께 잠들어 있다.



고려의 시작과 끝

강원도는 1100여 년 전 궁예가 중국대륙과 한반도를 아우르는 거대한 대동방국 건설의 야망을 품고 처음 도읍을 세웠던 곳이다. 이곳에서 왕건을 만났고 고려가 탄생했다. 고려의 마지막 왕이 유배되고 피살당한 곳 역시 강원도였다. 역사의 갈림길에서 영웅의 탄생을 지켜봤고 사라져 가는 왕조를 마지막으로 품은 땅, 강원도에서 고려의 시작과 끝을 다시 되짚어본다.

동해안

철원 평화전망대 ➔ 고성 왕곡마을 ➔ 양양 하조대 ➔ 삼척 준경묘 · 영경묘 ➔ 삼척 공양왕릉

조선 여성 지성사

오죽헌 | 보물 제165호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가 태어난 곳으로, 트랙에 오죽헌박물관이 있다. 신사임당과 율곡 선생의 유품과 일가의 수준 높은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허난설헌 생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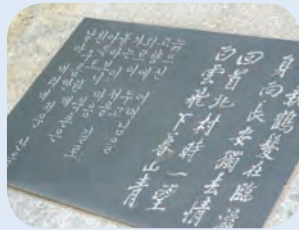
이광노 기옥,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59호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여류 시인 허난설헌의 생가를 복원해 놓은 곳이다. 허난설헌 일가의 작품과 유품들이 전시돼 있다.



신사임당 사친시비

사임당이 38세에 늙은 어머니를 친정에 남겨두고 시댁으로 가는 도중, 대관령 중턱에서 고향 마을을 내려다보며 지은 시를 새겨놓은 것이다.



임윤지당 기념비

임윤지당은 조선후기 부단한 심성수양과 도덕적 실천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학문을 드높인 여성 성리학자다. 기념비에는 칼날 같은 마음의 결단력으로 사욕을 끊고 자기수련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비검명(匕劍名)이 새겨졌다.



윤희순 동상

춘천시립도서관 후원에 세운 윤희순의 동상으로 일제에 항거해 남자들은 물론 여인들에게도 의병활동을 함께할 것을 독려했던 여장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윤희순 유적지

조선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의 유적지다. 윤희순이 시집와서 살았던 옛집과 우물이 복원되어 있으며, 의적비와 노래비 등이 있다.



조선 여성 지성사

조선시대의 이상적인 여인상은 현모양처였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꿈꾸며 수준 높은 학문과 예술을 탐구한 여인들이 있었다. 뛰어난 그림을 남긴 화가 신사임당, 중국과 일본 까지 이름을 드높인 시인 허난설헌, 깊이 있는 지식세계를 구축한 성리학자 임윤지당, 나라를 되찾기 위해 앞장섰던 의병장 윤희순. 시대를 앞서 간 그녀들의 삶을 따라가 본다.

추천코스

오죽헌 → 허난설헌 생가터 → 신사임당 사친시비 → 임윤지당 기념비 → 윤희순 동상 → 윤희순 유적지

동학농민운동과 의병



● 풍암리 동학혁명군 전적지 | 강원도 기념물 제25호

조선후기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싸웠던 전적지이다. 강원도에서 치른 동학군의 마지막 전투지며, 8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동학군전적기념비가 세워져 그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 기미만세공원

일제 탄압에 항거하여 만세운동을 하다 이곳에서 순직한 8명의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기념공원이다. 선열들의 애국충절을 기리기 위한 팔렬각과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동상이 세워졌다.

● 인암 류인석 유적지 | 강원도 기념물 제74호

조선탈기 항일의병투쟁을 주도하고 해외독립군 기지를 개척한 의암 류인석의 묘역이다. 류인석의 의병활동과 관련한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기념관과 함께 의병학교를 운영 중이다.



● 관동창의대장 민금호 묘소

1907년 정미의병을 이끌며 항일운동을 한 관동창의군의 대장 민금호의 묘소가 있는 곳이다. 민금호 대장에 대한 설명과 의병활동을 보여주는 부조, 충훈탑 등이 조성돼 있다.



동학농민운동과 의병

조선말기, 유교사상과 철저한 신분제로 유지되던 사회는 새로운 사상이 흘러들면서 점차 흔들리고,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리던 외세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많은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 목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만민평등과 외세척결을 명분으로 시작된 동학농민운동과 이후 이어진 의병활동. 강원도를 거점으로 한 민초들의 외침에 귀기울여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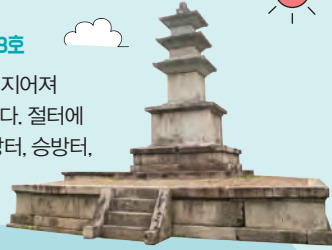
풍암리 동학혁명군 전적지 → 기미만세공원 → 의암 류인석 유적지 → 관동창의대장 민금호 묘소

옛 절터를 찾아서



● 원주 거둔사지 | 사적 제168호

신라후기인 9세기 경에 처음 지어져 조선전기까지 유지된 절터이다. 절터에 서는 중문터, 탑, 금당터, 강당터, 승방터, 회랑 등이 확인되었다.



● 원주 법천사지 | 사적 제466호

화엄종과 더불어 고려시대 양대 종단이었던 법상종 사찰로 번성하였으며, 왕실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던 지광국사 해린이 법천사로 은퇴하면서 크게 융성하였다가 임진왜란 때 전소되었다.

● 원주 흥법사지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45호

염거화상탑(국보 제104호), 진공대사탑 및 석관(보물 제365호)이 있었는데, 일본인들에 의해 강제로 반출되었다가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현재는 흥법사지삼층석탑(보물 제464호), 진공대사탑비(보물 제463호)만이 남아있다.



● 홍천 물걸리사지 | 강원도 기념물 제47호

통일신라시대의 홍양사가 있던 장소로 알려져 있다. 석조여래좌상(보물 제541호), 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542호), 대좌(보물 제543호), 대좌 및 광배(보물 제544호), 삼층석탑(보물 제545호)이 보존되어 있다.

● 양양 선림원지 | 강원도 기념물 제53호

9세기 초 순응법사에 의해 창건된 후 흥각선사에 의해 중창되었다고 전해진다. 지금으로부터 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대홍수로 인한 산사태로 절터가 완전히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 고성 건봉사

전국 4대 사찰의 하나로, 520년(신라 법흥왕 7)에 아도화상이 지은 절이다. 임진왜란 때 이곳에서 사명대사가 승병을 모집하였는데 모두 6,000여 명이 모여서 왜적을 무찔렀다고 한다.

*고성 건봉사지(강원도 기념물 제51호)



옛 절터를 찾아서

옛 절터를 찾아가는 여행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여행이다. 폐사지(廢寺址)라는 말 자체가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절의 옛 흔적을 말하는 것이니 당연히 그곳에 화려한 볼거리는 거의 없다. 상상의 여행이자 시공간을 초월한 시간탐험과도 같다.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그곳으로 여행을 시작한다.

추천코스

원주 거둔사지 → 원주 법천사지 → 원주 흥법사지 → 홍천 물걸리사지 → 양양 선림원지 → 고성 건봉사

한국 전통 조경의 미학

●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 | 명승 제70호

973년(고려 광종 24)에 지어진 청평사 일대는 계곡 사이 아늑한 분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영지, 폭포, 너럭바위 등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 소양정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호

삼국시대에 처음 세운 것으로 전해지는데, 여러 차례 홍수와 전쟁으로 소실된 것을 재건하였다. 소양호가 내려다보이는 봉의산 기슭에 있어 전망이 빼어나다.



● 수타사

한국의 100대 명산 중 하나로 꼽히는 공작산이 감싸고 있는 수타사는 봄에는 철쭉, 가을에는 단풍이 매우 아름다우며 기암절벽과 분재 모양의 노송군락, 눈 덮인 겨울산도 일품이다. 수타사 계곡에는 넓은 암반과 큼직한 소(沼), 기암절벽이 비경을 이루고 있다.



● 강릉 선교장 | 국가민속문화재 제5호

조선시대 대표적인 사대부의 가옥 형태를 하고 있는데, 낮은 언덕의 지형지물을 그대로 살려 자유롭게 배치한 건물들이 멋스럽다.



● 강릉 해운정 | 보물 제183호

경포호가 내다보이는 곳에 지은 조선시대 상류 주택의 별당 건물이다. 3단으로 쌓은 축대 위에 지어 멀리 담 너머 풍경이 환하게 내다보인다.



한국 전통 조경의 미학

한국 전통정원은 그 경계를 따지지 않는다.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 내 땅'이라는 농담처럼, 우리의 정원은 자연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기거하고 있는 공간을 자연의 작은 일부로 여기고, 대신 담장 너머, 창문 사이, 대문 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자연 모두를 넉넉하게 끌어안은 우리나라 전통 조경의 아름다움을 찾아 길을 나선다.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 → 소양정 → 수타사 → 강릉 선교장 → 강릉 해운정

한국전쟁의 참상과 민족의 비극

백마고지

한국전쟁 당시인 1952년 10월 한국군과 미군이 중공군과 싸워 승리한 곳이다. 치열했던 전투 끝에 희생된 영혼을 기리고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뜻을 담은 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철원 노동당사 | 등록문화재 제22호

1946년 공산치하에서 지역 주민들의 강제 노동력 동원과 모금에 의해 완공된 자상 3층의 건축물이며, 사회주의 리얼리즘 계열의 건축적 특징과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철원 승일교 | 등록문화재 제26호

1948년부터 공산당 치하에서 철원 지역 주민들이 총동원되어 짓기 시작했으나 한국전쟁의 발발로 중단되었다가 1958년 우리 정부에 의해 남측 부분을 시공해 완성했다.



평화의 댐 · 세계평화의 종 공원

북한의 금강산댐에 대비하기 위해 1987년 착공해 1989년에 완공됐다. 전쟁탄피를 모아 만든 세계평화의 종 공원, 비목공원 등이 조성돼 있다.



을지전망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약 1킬로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맑은 날이면 금강산 봉우리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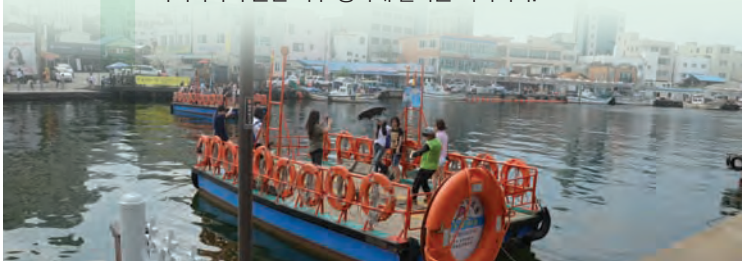
고성 통일전망대

동해안 최북단에 있으며,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금강산 해금강을 볼 수 있다. 전망대 옆에는 통일을 기원하는 미륵불상과 성모상이 세워져 있다.



속초 아바이마을

한국전쟁 당시 함경도에서 온 피난민들이 바닷가에 임시로 거처하다가 분단 이후 정착해 살아온 지역이다.



한국전쟁의 참상과 민족의 비극

전쟁은 많은 상처를 남긴다. 쏟아지는 포탄과 끊임없는 총성 속에서 많은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을 잃었다. 뿐만 아니라 아군과 적군으로 나뉘어 총칼을 겨누는 사람들은 큰 트라우마를 안고 평생을 살아간다. 포탄과 총성은 잠시 끊겼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전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간다.

추천코스

백마고지 → 철원 노동당사 → 철원 승일교 → 평화의 댐 · 세계평화의 종 공원 → 을지전망대 → 고성 통일전망대 → 속초 아바이마을

DMZ의 환경과 천연기념물

● 토교저수지

철원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저수지다. 겨울이면 철새들이 모여든다.



● 철원 두루미관

천연기념물인 두루미를 비롯해 독수리와 부엉이, 고라니, 멧돼지, 담비 등 철원지역의 동물들을 볼 수 있다.



● 송대소

한탄강 줄기에 생긴 작은 소(沼)로, 작은 호수같은 모습이다. 직각으로 형성된 주상절리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며, 주변으로 산책로와 트레킹 코스가 조성되어 있다.

● 비수구미 마을

화전담으로 생긴 파로호 상류에 있는 오지마을로, 총 네 가구가 산다. 최근에는 트레킹 코스가 조성됐다.



● 두타연

민통선 안에 있는 곳으로 수입천의 물이 계곡을 따라 흐르다가 바위를 만나 작은 폭포를 이루며 만든 연못이다.

● 펀치볼 마을

해발 1,000미터 이상의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의 마을이다. 마을의 모습이 마치 화채그릇 같다고 해서 펀치볼(Punchbowl)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 고성 화진포 | 강원도 기념물 제10호

둘레가 16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자연호수로, 갈대가 우거져 철새들의 서식지로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호수 주변의 해당화와 송림도 장관을 이룬다.



DMZ의 환경과 천연기념물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지면서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질러 철책선이 쳐지고 900여 평방킬로미터의 땅은 접근할 수 없는, 사라진 땅이 되었다. DMZ에 민간인통제구역까지 더해진 이곳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다. 사람들이 사라진 이 땅에 새로운 주인은 '자연'이 되었고, 수십 년 동안 생태계가 복원돼 원시자연에 가까운 모습으로 되살아났다.



토교저수지 → 철원 두루미관 → 송대소 → 비수구미 마을 → 두타연 → 펀치볼 마을 → 고성 화진포

지질 여행과 동굴 탐험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 천연기념물 제417호

동굴처럼 생긴 독특한 지형이다. 퇴적구조, 침식지형 등 다양한 지질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고생대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평창 백룡동굴 | 천연기념물 제260호

2010년 이전까지 비공개로 보존되어 원시 그대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현재는 생태학습형 체험 동굴로 개발해 한정 개방하고 있으며, 조명 등의 인공적인 시설을 최소화해 자연 그대로의 동굴을 볼 수 있다.



정선 화암굴 | 강원도 기념물 제33호

금을 캐내던 광산과 석회동굴이 함께 어우러진 세계 유일의 동굴이다. 쉽고 재미있게 지질에 대해 설명해놓아 학습효과가 크다.



영월 고씨굴 | 천연기념물 제219호

남한강 상류에 형성된 자연동굴로, 임진왜란 당시 고씨 일가가 숨어들었다 하여 고씨굴이라 불린다. 희귀한 동굴 생물이 많이 살고 있다.



영월 문곡리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틀라이트 | 천연기념물 제413호

지구상에서 최초로 살기 시작한 미생물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작은 퇴적물 알갱이가 겹겹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생명의 근원을 알려주는 열쇠가 되어준다.



영월 무릉리 요선암 돌개구멍 | 천연기념물 제543호

하천을 따라 흘러 내려온 자갈과 모래가 기반암을 깎아내 만든 지형이다. 흐르는 물이 만들어낸 크고 작은 웅덩이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지질 여행과 동굴 탐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나이는 약 46억 년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1만 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구가 생성된 시기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지질시대라 부르는데,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은 그 장구한 시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돌과 흙이 들려주는 46억 년의 오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자.

주천요소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 평창 백룡동굴 → 정선 화암굴 → 영월 고씨굴 → 영월 문곡리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틀라이트 → 영월 무릉리 요선암 돌개구멍



정선아리랑



아우라지

평창에서 흘러오는 송천과 삼척에서 흘러오는 골지천이 만나는 곳으로 두 물길이 만나 어우러진다는 의미로 '아우라지'라 불린다. 서울까지 이어지는 남한강 물길을 따라 목재를 운반하던 뗏목의 출발점으로, 각지에서 모여든 뗏꾼들의 아라리 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이다.



정선아리랑 전수관

정선아리랑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고자 만들어진 곳이다. 미리 전화예약을 하고 정해진 교육시간에 맞추어 방문하면 공인된 전수자들로부터 무료로 정선아리랑을 배울 수 있다. 단체인 경우 숙박도 가능하다.

정선5일장

1966년 개장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전통시장 중 하나로 손꼽힌다. 정선의 산에서 나는 나물과 약초, 감자 등 직접 채취하거나 재배한 농작물을 싼 값에 구입할 수 있으며, 장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은 지역의 전통적인 먹을거리다.



정선아리랑극

정선문화예술회관 3층에 위치한 전용극장에서는 정선아리랑을 응용한 아리랑극이 상설 공연되고 있다. 정선5일장이 열리는 날 오후 2시부터 공연을 볼 수 있다.

아라리촌

정선의 전통가옥을 재현한 곳으로 기와집, 초가집, 너와집, 돌집, 귀틀집, 저릅집(겨릅집) 등 다양한 종류의 가옥과 장승을 볼 수 있다. 해학과 풍자가 넘치는 '양반전'의 내용을 재현해 놓은 불거리가 있으며 양반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선아리랑

2012년 아리랑이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다. 정선아리랑은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아리랑으로 손꼽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되어 다른 아리랑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진다. 정선의 어떤 면이 우리 민족의 영혼이라 불리는 아리랑을 탄생시켰을까? 굵이굽이 고개를 돌아 정선여행을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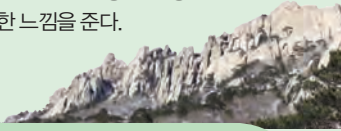
아우라지 → 정선아리랑 전수관 → 정선5일장 → 정선아리랑극 → 아라리촌



설악산의 전설과 설화

● 설악산 울산바위 | 명승 제100호

병풍처럼 우뚝 솟은 거대한 화강암체로 모두 6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고, 정상부에는 항아리 모양의 구멍이 5개가 있어 근경이 훌륭하다. 원경도 빼어나 특히 미시령 옛길 방면에서 보이는 경치가 웅장하고 탁월한 느낌을 준다.



● 설악산 흔들바위



울산바위 아래의 계조암 앞에 있는 바위이다. 한 사람이 흔들나 백 사람이 흔들나 똑같이 흔들린다고 하여 설악산 팔기(八奇) 가운데 하나이다.

● 신흥사

신라 진덕여왕 6년(652)에 자장율사가 '향성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하였다. 이후 여러번의 소실과 중건으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절 이름은 신인이 길지를 점지해 주어 흥왕하게 되었다 하여 '신흥사'라 한 것이다. 신흥사에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 제1721호), 목조지장보살삼존상(보물 제1749호), 신흥사극락보전(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4호), 보제루(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4호) 등 많은 문화유산이 있다.



● 백담사

신라시대 옛 한계사 터에 처음 창건된 이후 여러 차례 화재로 소실되어 재건을 거듭하다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으며 백담(100개의 웅덩이)이라는 이름과 관련한 설화가 전해진다.



● 설악산 십이선녀탕 일원 | 명승 제98호



열두 명의 선녀가 내려와 만들었다는 곳으로 여덟 개의 폭포와 연못이 골짜기를 따라 연이어 자리해 있다.



● 설악산 대승폭포 | 명승 제97호

해발 740미터 폭포, 높이 약 88미터의 웅장한 폭포로서 금강산의 구룡폭포, 개성의 박연폭포와 함께 한국 3대 폭포의 하나이다.



●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 천연기념물 제529호

땅으로 흘러들어간 물이 땅속의 나트륨과 철분을 녹여 다시 솟아난 약수로 나트륨 함량이 높아 특이한 맛과 색을 지닌다. 1500년경 한 스님이 발견한 이후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설악산의 전설과 설화

설악산은 한반도에서 금강산 다음 가는 명산으로 손꼽힌다. 우뚝 솟은 봉우리와 그 사이를 잇는 능선, 여러 형태의 기암괴석, 굽이쳐 흐르는 맑은 계곡과 폭포들은 탄성을 자아낸다. 우리 조상들은 그 감탄을 전설과 설화로 만들어냈고, 폭포와 바위 하나 하나는 저마다의 사연을 간직하게 됐다. 눈앞에 펼쳐지는 비경과 굽이굽이 서려있는 이야기를 따라 설악산을 올라본다.



설악산 울산바위 → 설악산 흔들바위 → 신흥사 → 백담사 → 설악산 십이선녀탕 일원 → 설악산 대승폭포 →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탄광촌 이야기



● 석탄역사체험관

옛 동원탄좌 사북광업소를 개조해 만든 전시관이다. 옛 탄광에서 사용하던 물품과 광부들의 생활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열차를 타고 갱도 안에 들어가 볼 수도 있다.



● 삼탄아트마인

옛 삼척탄좌 시설을 창조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공간이다. 탄광시설과 어우러진 수준 높은 설치 미술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다양한 예술활동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탄광촌 이야기

정선, 태백, 삼척으로 이어지는 강원도 산간지역은 우리나라 근현대 산업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석탄산업의 중심지였다. 대부분의 생산을 중단한 지금, 그 수많은 탄광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했던 광부들과 그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추천코스

석탄역사체험관 → 삼탄아트마인 → 태백 석탄박물관 → 상장동 남부마을 → 태백 철암역두 선탄시설 → 동해 구 삼척개발 사택과 합숙소

● 태백 석탄박물관



태백산도립공원 내에 위치하며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 자원이었던 석탄의 모든 것을 한곳에 모아 일목요연하게 전시하는 곳이다. 석탄의 탄생과 석탄산업의 발전, 태백의 지형적 특성 등을 흥미롭게 구성해놓았다.

● 상장동 남부마을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주로 모여 살던 동네로, 다양한 벽화가 그려진 색다른 분위기의 이야기 마을이다. 폐광과 함께 급격히 낙후됐던 지역이 예술과 문화의 힘으로 변화한 사례다.



● 태백 철암역두 선탄시설 | 등록문화재 제21호

무연탄을 본격적인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무연탄 선탄시설로, 우리나라 근대 산업을 상징하는 주요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철암역 앞에는 까치밭 건물을 보존해 만든 철암탄광역사촌이 있다.



● 동해 구 삼척개발 사택과 합숙소 | 등록문화재 제456호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탄광회사의 사택으로, 직급과 기혼자, 미혼자를 구분하여 만든 구조가 비교적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옛 광부들의 생활모습을 엿볼 수 있다.



선사시대 유적



고성 문암리 유적 | 사적 제426호

지금까지 발견된 신석기시대 유적 중 최남단에 위치한 유적이며, 인근에는 초기 철기시대의 유적도 분포하고 있어 여러 시기에 걸쳐 사람이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곳에서 발견된 밭은 한반도에서 농경이 시작된 시기가 신석기시대 중기라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양양 오산리 유적 | 사적 제394호

주변 호수를 매립해 농지로 조성하다가 발견했는데, 여러 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총 4,000여 점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유적지 옆의 선사유적박물관에서는 오산리 유적뿐만 아니라 동해안 지역의 선사유적에 대한 폭넓은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양구 선사박물관

양구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강 유역에서 발굴조사된 선사유적을 소개하는 박물관이다. 양구 상무릉리 구석기 유적, 양구 고대리 · 공수리 청동기시대 유적, 양구해안 만대리 선사유적 등과 춘천, 화천, 홍천, 인제 등지에서 발굴된 유물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춘천 천전리 지식묘군 | 강원도 기념물 제4호

지석묘는 청동기시대의 대표적 유적인 고인돌을 뜻한다. 소양강 변에 위치해 있으며, 네 개의 받침돌을 세워 지상에 무덤방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하고 평평한 덮개돌을 올려놓은 탁자식 고인돌 5기가 남아있다.



국립춘천박물관

강원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특히 선사실에는 구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까지 강원도 내 각 유적에서 출토된 다양한 문화재가 주제별, 유적별로 전시되어 있다.



선사시대 유적

선사시대 유적은 당시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정착하고 생활했는지를 증명해주는 소중한 단서가 된다. 그러나 발굴된 유적들은 일반인들에게는 그저 너른 공간에 흩어져있는 돌무지로 보이기 십상이다. 그곳에서 수천 년 전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그 수고가 더해진다면 값진 선물을 얻어가는 여행길이 된다.



고성 문암리 유적 → 양양 오산리 유적 → 양구 선사박물관 → 춘천 천전리 지식묘군 → 국립춘천박물관

동해안 별신굿

● 대관령 성황사 및 산신각 | 강원도 기념물 제54호

성황사는 통일신라시대의 승려로 강릉지역을 보호하는 신으로 추앙받던 범일국사를 모신 곳이다. 산신각은 이곳에서 검술을 배운 김유신 장군을 모신 곳이다.



● 구산 서낭당

대관령에서 강릉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 신의 영역인 대관령 구간과 인간의 영역인 강릉을 나누는 경계에 해당한다. 단오제 기간 중 강릉 주민들이 성대하게 신을 맞이했던 장소다.



● 칠사당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호

한 달 이상 이어지는 단오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신주빛기'가 이곳에서 진행된다. 신주빛기란 단오제 행사 동안 쓰일 술과 떡을 정성스럽게 만드는 일이다.



● 강릉 단오문화관

단오제 기간 외에도 단오제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모형과 사진을 전시해놓았다. 한 달에 한 차례 단오제 관련 공연도 볼 수 있다.



● 삼척 척주동해비 및 평수토찬비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8호

척주동해비는 조선시대 허목이 세운 비석으로, 바다를 잠재우고 어민들의 피해를 막아주는 신비한 능력을 지녔다고 전해진다. 평수토찬비 역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원래는 목판에 새겨진 것을 돌에 다시 새겨 넣은 것이다.



● 해신당공원

남근승배사상이 남아있는 신남마을에 조성된 공원으로 해신당 설화와 관련된 전시물과 남근을 소재로 한 조각품들이 있다. 공원 안에 있는 어촌민속전시관에서는 동해안 어촌의 생활상과 전통을 엿볼 수 있다.



동해안 별신굿

신이냐 죽은 이들을 위해 올리는 제(祭)는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안식을 비는 일로 시작되지만 이 모든 것은 산 사람들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진다. 이런 제의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축제로 자리하고 문화예술로 발전해왔다. 강릉의 단오제는 이런 전통 축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신과 인간이 함께하는 그 길을 따라가보자.

유형문화재

대관령 성황사 및 산신각 → 구산 서낭당 → 칠사당 → 강릉 단오문화관
→ 삼척 척주동해비 및 평수토찬비 → 해신당공원

천년
옛길

깨달음과 치유의 천년 옛길 오대산 월정사 힐링로드

● 오대산

백두대간의 중심축에 위치한 오대산은 예로부터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과 더불어 명산으로 손꼽힌다. 비로봉을 중심으로 호령봉·상왕봉·두로봉·동대산 등의 고봉들이 솟아있다. 산의 가운데에 있는 중대를 비롯하여 동서남북의 산세가 다섯 개의 연꽃잎에 싸인 연심(蓮心)과 같다 하여 오대산이라고 부른다.



● 소금강 | 명승 제1호

오대산국립공원 최고의 비경인 소금강은 조선시대 학자 율곡 이이가 빼어난 산세가 마치 금강산을 축소해 놓은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소금강 내 유일한 사찰인 금강사(金剛寺) 앞 영춘대에는 율곡이 직접 쓴 '소금강'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다. 진고개를 지나 노인봉에서 소금강까지 내려오는 전 구간이 계곡을 끼고 있으며 가을이면 화려한 단풍이 장관을 이룬다.

● 월정사

월정사는 신라 선덕여왕 12년(643),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되었다. 자장율사는 중국으로 유학하여 산서성 오대산의 태화지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한다. 이때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사리와 가사를 전해준 뒤, 신라에서도 오대산을 찾으라는 가르침을 주어 귀국하여 찾은 곳이 오대산이며 이곳에 초암을 지은 것이 월정사의 시원이 되었다. 뒤로 만월산의 정기가 모인 곳에 들어앉은 월정사는 사철 푸른 침엽수림에 둘러싸여 있다.

●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국보 제48-1호)

월정사 앞마당에 우뚝 서있는 고려시대 초기의 석탑으로 당시 불교문화 특유의 화려하고 귀족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석탑 귀퉁이마다 풍경을 달아놓아 바람이 불 때마다 딸랑대는 풍경소리가 정겹다.

●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국보 제48-2호)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앞에 공양하는 모습의 석조보살좌상이 마주보며 앉아있다. 손에 향로를 들고 탑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자장의 옛절에 문수보살이 있어 탑 위로 천년 동안 새가 날지 못한다"는 내용이 전한다.

● 월정사적멸보궁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8호)

우리나라 4대 보궁의 하나이다.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들어오면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가져와 오대산에 봉안하면서 이 보궁을 창건했다고 전한다.



● 선재길

선재동자에서 유래한 선재길은 월정사 건너편 계곡 숲길에서 시작하여 상원사까지 이어지는 약 9km의 완만한 숲길이다. 자장율사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이후 스님과 불자들에게는 깨달음의 길이었고, 화전민들에게는 삶의 애환이 꼭꼭 새겨진 길이였다. 조선시대에는 선조임금이 병든 몸과 정신을 치유하기 위해 오르기도 했다. 1960년대 말 울진·삼척 무장공비사건 이후 도로가 나면서 잊혀져있던 이 옛길을 2008년 복원하였다.



● 평창 오대산사고 | 사적 제37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왕실의 족보인 『선원보략(璿遠譜略)』을 보관하기 위해 지었던 조선후기 5대 사고 중 하나이다. 이번 평창올림픽 기간에 맞춰 3월 20일까지 월정사 오대산사고 전시관에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복제본'이 전시된다.



● 상원사

오대산 중대에 위치한 상원사는 705년(신라 성덕왕 4)에 창건된 사찰로 처음에는 진여원(眞如院)이라 하였다. 신라의 두 왕자 보천과 효명이 불도에 정진하다가 효명이 왕위에 오른 뒤 지금의 상원사터에 진여원(眞如院)을 창건하고 문수보살상을 봉안했다. 조선시대 세조임금이 이곳에서 기도하던 중 문수보살을 만나 불치의 병을 치유한 뒤 이름을 '상원사'로 바꾸었다.

● 상원사 동종(국보 제36호)

725년(신라 성덕왕 24)에 조성되어 1469년(조선 예종 원년)에 상원사로 옮겨졌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동종 중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범종으로 음향이 맑고 깨끗하다. 종신의 상대와 하대에는 화려한 당초문이 새겨져 있고, 종신에 조각된 비천상은 악기(공후와 생)를 연주하며 곧 하늘로 솟아오를 듯 경쾌하다.



오대산은 산 전체가 불교의 성지가 된 남한 유일의 산이다. 문수보살을 친견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던 자장율사와 속세를 버리고 구도의 길을 가고자 했던 신라 두 왕자의 불심으로 오대산의 월정사와 상원사는 문수보살의 성지가 되었다. 오대산이 품고 있는 천년고찰 월정사와 상원사로 이어지는 숲과 계곡, 그리고 사찰이 주는 고즈넉함을 따라 깨달음과 치유의 옛길을 거닐어보자.

추천코스

오대산 → 소금강 → 월정사 → 선재길 → 평창 오대산사고 → 상원사